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21년 한국 경제 전망  
- 3% 성장률로 회귀 -

# 목 차

---

## ■ 2021년 한국 경제 전망

- 3% 성장률로 회귀

Executive Summary .....	i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	1
2. 대외 경제 여건 .....	2
3. 2021년 한국 경제 전망 .....	6
4. 시사점 .....	11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 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홍 준 표 연 구 위 원 (2072-6214, jphong@hri.co.kr)

                                  정 민 연 구 위 원 (2072-6220, chungm@hri.co.kr )외 4명

## Executive Summary

### □ 2021년 한국 경제 전망

- 3% 성장률로 회복

#### ■ 최근 국내 경제 동향

2020년 3분기 현재 국내 경제는 수출 및 제조업 회복에 힘입어 상반기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본격적인 회복 경로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기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2020년 1분기 -1.3%, 2분기 -3.2%에서 3분기에는 1.9%로 플러스 반등했다. 그러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020년 3분기 현재 -1.3%로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소비는 코로나19 확산세 및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른 영향을 받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선행지수가 회복세를 시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전망 및 바이러스 확산 등의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고용 충격은 지속되고 있으며, 미약한 경제 활동으로 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에 대한 어느정도 적응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 ■ 대외 경제 여건

**2021년 세계 경제는 이동제한 완화 및 경제주체 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반등할 것이 전망된다.** 선진국 경기는 상품소비 회복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에도 여전히 바이러스의 재확산 여부 및 강도가 경기 흐름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책 당국의 지원, 자산 가격의 유지 및 비대면 소비 활동의 지속 등을 고려하면 선진국의 상품소비 활동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 경기도 반등하겠지만 산업생산 둔화, 바이러스 관련 불확실성, 재고 누적, 낮은 원자재 가격 등에 따르는 투자 부진이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교역 역시 플러스 증가율로 반전할 것이 전망된다. 바이러스 확산세 및 경제 전망 관련 불확실성 상존 등의 영향으로 자본재 교역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플러스 반등폭은 기저효과에 대한 반등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국제 유가는 완만한 상승이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유 수요 부진 및 원유 공급 누적 등의 원인으로 2020년 국제 유가는 2019년 대비 대폭 하락한 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2021년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원유 수요가 증대되는 동시

에 산유국간 감산 공조 체제 지속으로 원유 공급 과잉 및 재고 누적 수준이 점차 완화되어 국제 유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지속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 요인이 상존하여 국제 유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달러화 및 엔화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위안화는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미 달러화 및 엔화는 각각 연준(Fed)의 평균물가 목표제 도입 등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및 세계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위험 선호 심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유로화는 유로회복기금 집행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달러화 약보합세 등의 영향으로 강세가 전망된다. 위안화는 중국의 내수투자 확대, 경기 개선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 ■ 2021년 한국 경제 전망

**2021년도 한국 경제는 3% 성장률로의 회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소비와 투자, 대외 교역의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0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여부가 경기 흐름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이기는 하나, 경제주체들의 적응력 역시 이전보다 강화되면서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같은 경제 활동의 급격한 위축이 재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2021년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강화되는 '상저하고'를 예상한다.

민간소비는 2021년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활동 제약 및 소비심리 악화가 일부 완화되고 기저효과 등에 따른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고용 안정 정책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및 노동시장의 이력 현상 발생,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예비적 저축 증가 가능성 등에 따라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건설투자 증가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판 뉴딜에 따른 공공인프라, 생활형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SOC 확대 정책에 힘입어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2021년 건설투자는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주택 수주 등 선행지표 개선, 미분양 물량 감소로 주택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로 공공주택 건설은 늘어나겠지만, 민간 주택 투자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2021년 세계 경기 반등 기대와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수요 확산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수요 확대는 설비투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정보기술(IT) 부문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혁신성장 기조 등도 설비투자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석유화학 및 철강 등 기타 산업의 채산성 악화와 이에 따른 신규투자 제약, 코로나19 전개양상의 불확실성 등은 설비투자 증가폭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1년 수출증가율은 세계 경기 개선 및 기저효과로 2020년 대비 반등할 전망이다. 코로나19 발생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각국에서 도입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의 효과가 지속되며 2021년 세계 수출시장의 수입 수요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이 높은 성장을 지속하며 수출 반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중 갈등을 비롯한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지속 등이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품 수지의 개선으로 경상수지는 2020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소비자물가는 2019~2020년 연속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수요 증대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물가상승률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잔존, 글로벌 달러화 가치 약세 지속으로 인한 수입물가 하향 안정 등은 물가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여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부문에서는 2021년 실업률은 하락하고, 취업자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감소 및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연기 등이 완화되면서 취업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고용 안정 정책이 지속되고 한국판 뉴딜 등이 민간 부문의 투자 개선세로 이어진다면 고용시장의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19 종식이 지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될 경우 고용시장의 개선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 &lt; 2021년 국내 경제 전망 &gt;

구 분	2019년 연간	2020년			2021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2.0	-0.7	-0.9	-0.8	2.6	3.4	3.0
민간소비 (%)	1.7	-4.4	-4.0	-4.2	4.1	3.9	4.0
건설투자 (%)	-2.5	1.7	-1.3	0.2	0.5	3.2	1.9
설비투자 (%)	-7.5	5.6	4.7	5.2	4.6	7.2	5.9
수출증가율 (%)	-10.4	-11.3	-1.4	-6.3	8.7	11.4	10.1
소비자물가 (%)	0.4	0.6	0.8	0.7	1.0	1.4	1.2
실업률 (%)	3.8	4.3	3.5	3.9	4.2	3.2	3.7

주 :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 시사점

단기적으로 경제 반등세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 성장력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 경제의 반등세 안착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경제 주체들의 생존 지원을 지속하고 중장기적으로도 경제 체질 업그레이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간소비의 하방압력을 완화하고 고용시장 안정 및 소득 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경제 성장의 기반 확보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활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넷째, 건설경기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의 공사 조기 발주 확대와 일관된 정책 추진이 요구되며, 민간 부문 투자 및 사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다섯째,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여섯째,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물가 불안을 경계하고 서민 체감 물가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일곱째,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산업 활력 확보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 ○ 최근 국내 경기는 상반기의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 감지

- 2020년 3분기 국내 경제는 수출 및 제조업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상반기의 침체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

- 2020년 전기대비 성장률은 1분기 -1.3%, 2분기 -3.2%의 마이너스에서 3분기에는 1.9%로 플러스 반등
- 2020년 3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1.3%로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에 위치하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2020년 3분기 순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전년동기대비 기준 0.3%p, 전기대비 기준 3.8%p로서 3분기 경제성장을 견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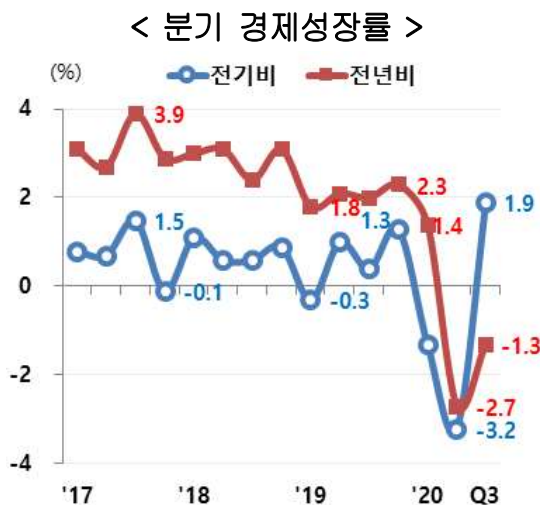
- 2020년 1월부터 하락하던 경기 지수(동행지수, 선행지수)는 5월을 저점으로 상승 반전하며 회복세를 지속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20년 5월 저점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20년 6월 97.0p → 7월 97.2p → 8월 97.6p → 9월 97.9p

-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상승세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20년 6월 99.9p → 7월 100.3p → 8월 100.9p → 9월 101.3p



자료 :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순환변동치 >



자료 : 통계청.

## 2. 대외 경제 여건

### ① 세계 경기 및 교역 : 반등 전망

#### ○ (현황)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경기 침체를 경험

- 선진국 경기 : 상반기에 상품 및 서비스 수요 위축, 생산 감소, 투자 부진, 노동공급 차질 등 경기가 침체되었지만, 하반기에 개선 조짐이 보임
- 신흥국 경기 : 선진국 수요 위축에 따른 국제 교역 감소, 공급체인망 가동 차질, 관광업 위축 등 경제 리스크 요인이 부각됨
- 세계 교역 :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세계 교역 역시 위축됨

<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경제성장률 추이 >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b>세계 경제성장률</b>	3.5	-	-	-	-	2.8	-	-	-
<b>선진국</b>	2.2	-	-	-	-	1.7	-	-	-
미 국	3.0	2.9	1.5	2.6	2.4	2.2	-5.0	-31.4	33.1
유로지역	1.8	-	-	-	-	1.3	-	-	-
일 본	0.3	0.7	0.4	0.0	-1.8	0.7	-0.6	-7.9	-
<b>신흥개도국</b>	4.5	-	-	-	-	3.7	-	-	-
중 국	6.8	6.4	6.2	6.0	6.0	6.1	-6.8	3.2	4.9
인 도	6.1	5.6	5.2	4.4	4.1	4.2	3.1	-23.9	-
브 라 질	1.3	0.6	1.1	1.2	1.7	1.1	-0.3	-11.4	-
러 시 아	2.5	0.4	1.1	1.5	2.1	1.3	1.6	-8.0	-
ASEAN-5	5.3	-	-	-	-	4.9	-	-	-
<b>세계 교역증가율</b>	3.9	-	-	-	-	2.2	-	-	-

자료1) 연간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0년 10월).

2) 분기 (미국: 상무부; 일본: 내각부; 유로존: Eurostat; 중국: 국가통계국;

인도: 인도중앙통계기구; 브라질: 국립통계원; 러시아: 연방 주 통계청).

주1) 분기성장률 (미국: 전기대비연율; 일본: 전기대비; 유로존: 전기대비; 중국: 전년동기대비;

인도: 전년동기대비; 브라질: 전년동기대비; 러시아: 전년동기대비).

2)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포함됨.

3) 세계 교역은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량 기준.



○ (전망) 2021년 세계 경제는 이동제한 완화 및 경제주체 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회복 전망

- 선진국 경기 :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는 상품소비 회복을 중심으로 개선세 지속 전망
  -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충격의 특성 상 민간 부문의 소비 비중이 큰 선진국의 경제가 재확산 여부 및 강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정책 당국의 지원, 자산 가격의 유지 및 비대면 소비 활동의 지속 등을 고려하면 선진국의 상품소비 활동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신흥국 경기 : 선진국 경기 회복은 신흥국의 수출 및 경제성장세 회복에 기여하겠지만 산업생산 둔화, 바이러스 관련 불확실성, 재고 누적, 낮은 원자재 가격 등에 따른 투자 부진의 제약 요인도 상존
  - 중국은 투자 부문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견실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누적되고 있는 기업 부채 리스크 상존은 경기 하방 리스크
- 세계 교역 : 바이러스 확산세 및 경제 전망 관련 불확실성 상존 등의 영향으로 자본재 교역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세계 교역의 회복세는 기저효과에 대한 반등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IMF의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

(%)

	2020년(E)			2021년(E)		
	2020년 4월 전망	2020년 6월 전망	2020년 10월 전망	2020년 4월 전망	2020년 6월 전망	2020년 10월 전망
<b>세계 경제성장률</b>	-3.0	-4.9	-4.4	5.8	5.4	5.2
<b>선진국</b>	-6.1	-8.0	-5.8	4.5	4.8	3.9
미국	-5.9	-8.0	-4.3	4.7	4.5	3.1
유로지역	-7.5	-10.2	-8.3	4.7	6.0	5.2
일본	-5.2	-5.8	-5.3	3.0	2.4	2.3
<b>신흥개도국</b>	-1.0	-3.0	-3.3	6.6	5.9	6.0
중국	1.2	1.0	1.9	9.2	8.2	8.2
인도	1.9	-4.5	-10.3	7.4	6.0	8.8
브라질	-5.3	-9.1	-5.8	2.9	3.6	2.8
러시아	-5.5	-6.6	-4.1	3.5	4.1	2.8
ASEAN-5	-0.6	-2.0	-3.4	7.8	6.2	6.2
<b>세계 교역증가율</b>	-11.0	-11.9	-10.4	8.4	8.0	8.3

자료 : IMF.

② 국제 유가 : 완만한 상승 전망

○ (현황) 2020년 국제 유가는 급락 후 하향 안정

- 2020년 국제 유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유 수요 부진 및 원유 공급 누적 등의 원인으로 2019년 대비 대폭 하락 후 하향 안정세 유지
  -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대응하여 주요국은 봉쇄조치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른 원유 수요 급감으로 국제 유가 급락
  - 이후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시현했으나 원유 수요 회복 정체 및 누적된 원유 재고 등의 요인으로 상승폭 제한
  - 2020년 9월 이후에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폭 하락

○ (전망) 2021년 국제 유가는 완만한 상승 전망

- 2021년 국제 유가는 세계 경제의 반등으로 원유 수요가 회복되고 산유국간 감산 공조 체제가 유지되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21년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유 수요 역시 증대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더불어 OPEC+등 산유국간 감산 공조 체제 지속으로 원유 공급 과잉 및 재고 누적 수준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지속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 요인이 상존하여 국제 유가는 제한적이고 완만한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판단

< WTI 및 Dubai 유가 추이 및 전망 >

(달러/배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WTI	64.9	57.0	37.0	39.9	38.5	42.7	49.5	46.1
Dubai	69.7	63.5	40.7	42.4	41.6	44.7	51.4	48.1

자료 : 한국석유공사, IHS Markit(2020.9).

주1) 2020년 상반기까지는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실적치.

2) 2020년 하반기부터는 IHS Markit의 유가 전망치.

③ 주요국 환율 : 달러화 및 엔화 약보합세, 유로화 및 위안화 강세 전망

○ (현황) 2020년 중 달러화는 약세, 유로화 및 엔화는 강세 흐름

- 달러화 :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달러화 가치 하락
  - 달러화 지수(주요국 통화대비)는 2020년 1월 97.4p에서 9월 93.4p로 하락
- 기타 주요국 통화 : 유로존의 경기 회복 기대와 안전자산 선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 및 엔화는 강세
  -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2020년 1월 0.90유로에서 9월 0.85유로로 하락
  -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2020년 1월 109.3엔에서 9월 105.6엔으로 하락

○ (전망) 2021년 달러화 및 엔화는 약보합세, 유로화 및 위안화 강세 전망

- 달러화 및 엔화 : 연준(Fed)의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등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세계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위험 선호 심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약보합세 전망
- 유로화 : 유로회복기금 집행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달러화 약보합세 등의 영향으로 강세 전망
- 위안화 : 내수투자 확대, 경기 개선 등으로 강세 전망

< 국제투자은행의 주요국 환율 전망 >

구분	유로/달러			엔/달러			위안/달러		
	2020년	2020년 4분기(E)	2021년 2분기(E)	2020년	2020년 4분기(E)	2021년 2분기(E)	2020년	2020년 4분기(E)	2021년 2분기(E)
평균	0.89	0.84	0.83	107.6	104.9	105.5	6.99	6.79	6.77
최고	-	0.87	0.89	-	108.0	109.0	-	7.10	7.45
최저	-	0.82	0.80	-	100.0	100.0	-	6.65	6.50

자료 : Bloomberg.

주 : 2020년은 1월 ~ 9월간 월평균 자료.

### 3. 2021년 한국 경제 전망

#### ○ 2021년 한국 경제는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 경제성장률 : 3% 성장률로 회귀할 전망

- 경제주체들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거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적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0년 연초와 같은 급격한 활동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을 전제로 함
-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강화되는 ‘상저하고’가 예상됨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1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경제성장률(%)	2.0	-0.7	-0.9	-0.8	2.6	3.4	3.0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 민간소비 : 증가세 전환 전망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활동 제약 및 소비심리 악화가 일부 완화되고 기저효과 등에 따라 2021년 민간소비는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또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고용 안정 정책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및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발생,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예비적 저축 증가 등에 따라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 상존
- 2021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4.1%, 하반기 3.9%, 연간 4.0%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1년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	1.7	-4.4	-4.0	-4.2	4.1	3.9	4.0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건설투자 : 증가폭 확대

- 한국판 뉴딜에 따르는 공공인프라, 생활형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SOC 확대 정책에 힘입어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2021년 건설투자는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
- 또한, 주택 수주, 착공실적 등 선행지표 개선, 미분양 물량 감소로 주택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주택 건설은 확대
- 다만, 부동산 규제 강화 지속 등으로 민간주택 투자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
- 2021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0.5%, 하반기 3.2%, 연간 1.9%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1년 건설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	-2.5	1.7	-1.3	0.2	0.5	3.2	1.9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설비투자 : 증가세 소폭 확대 전망

- 2021년 세계 경기 반등,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수요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지속,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으로 증가세 소폭 확대 전망
- 정보기술(IT) 부문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 등도 설비투자 증가를 이끌 것으로 기대
- 다만,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석유화학 및 철강 등 기타 산업의 채산성 악화와 이에 따른 신규투자 제약, 코로나19 전개양상의 불확실성 등은 설비투자 증가폭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1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4.6%, 하반기 7.2%, 연간 5.9%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1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	-7.5	5.6	4.7	5.2	4.6	7.2	5.9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수출입 : 증가율 반등 전망

- 2021년 수출증가율은 세계 경기 개선 및 2020년 수출 감소의 기저효과로 반등 전망
- 코로나19發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각국에서 도입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의 효과가 지속되며 2021년 세계 수출시장의 수입 수요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한 중국 경제가 2021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수출 반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미·중 갈등을 비롯한 전세계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
- 2021년 수입증가율은 2020년에 비해 국내 투자 및 수요심리가 개선되며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 : 흑자 규모 확대

- 2021년에는 상품수지 개선을 중심으로 경상수지가 2020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1년 경상수지는 상반기 266억 달러, 하반기 424억 달러, 연간 658억 달러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1년 대외거래 전망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억 달러)	600	192	361	553	266	392	658
무역수지(억 달러)	389	110	287	397	189	305	494
수출증가율(%)	-10.4	-11.3	-1.4	-6.3	8.7	11.4	10.1
수입증가율(%)	-6.0	-9.1	-4.9	-7.0	5.7	12.0	8.9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물가 : 상승폭 확대 전망

- 2019~2020년 연속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1년 물가상승률은 확대될 전망
- 국내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수요 증대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물가상승률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잔존, 글로벌 달러화 가치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하향 안정 등의 물가 하방 압력 요인도 상존
-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1.0%, 하반기 1.4%, 연간 1.2%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1년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b>0.4</b>	0.6	0.8	<b>0.7</b>	1.0	1.4	<b>1.2</b>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고용 : 실업률 하락, 취업자수 증가 전망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감소 및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연기 등이 완화되면서 취업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정부의 고용 안정 정책 지속과 더불어 한국판 뉴딜 등이 민간 부문의 투자 개선세로 이어진다면 고용시장의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코로나19 종식이 지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될 경우 고용시장의 개선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상존
- 2021년 실업률은 상반기 4.2%, 하반기 3.2%, 연간 3.7%, 신규 취업자수는 상반기 14만 명, 하반기 23만 명, 연간 19만 명으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1년 고용 지표 전망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실업률(%)	<b>3.8</b>	4.3	3.5	<b>3.9</b>	4.2	3.2	<b>3.7</b>
취업자수 증감(만명)	<b>30</b>	-6	-28	<b>-17</b>	14	23	<b>19</b>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lt; 현대경제연구원의 2021년 한국 경제 전망표 (2020.10) &gt;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2.0	-0.7	-0.9	-0.8	2.6	3.4	3.0
	민간소비 (%)	1.7	-4.4	-4.0	-4.2	4.1	3.9	4.0
	건설투자 (%)	-2.5	1.7	-1.3	0.2	0.5	3.2	1.9
	설비투자 (%)	-7.5	5.6	4.7	5.2	4.6	7.2	5.9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600	192	361	553	266	392	658
	무역수지 (억 달러)	389	110	287	397	189	305	494
	수출증가율 (%)	-10.4	-11.3	-1.4	-6.3	8.7	11.4	10.1
	수입증가율 (%)	-6.0	-9.1	-4.9	-7.0	5.7	12.0	8.9
소비자물가상승률 (%)		0.4	0.6	0.8	0.7	1.0	1.4	1.2
실업률 (%)		3.8	4.3	3.5	3.9	4.2	3.2	3.7
취업자수 증감(만 명)		30	-6	-28	-17	14	23	19



#### 4. 시사점

- (전망의 요약) 2021년도 한국 경제는 2020년의 코로나19 충격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 여부가 경기 흐름을 좌우하는 요인이지만,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 역시 이전보다 강화되면서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같은 경제 활동의 급격한 위축은 재발하지 않을 것을 전제
- (시사점) 단기적으로는 경기 반등세를 안착시키고 중장기적으로도 성장력 제고 노력 지속

첫째, 한국 경제의 반등세 안착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생존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업그레이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 잔존하는 바이러스 재확산 가능성 및 경기 불확실성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의 생존 지원이 가장 중요함
  -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의 유동성 공급 지속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원활한 지급 등 생산 및 고용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함
  -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재정지출 확대를 성장세 제고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집행 대상, 규모 및 타이밍 등의 적절성 향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재정 지출 구조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경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공격적 정책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등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생 경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더 붙여 잘사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시장 활력 제고 및 해외 시장 선점 등을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력이 지속되

어야 하며 규제개혁 방향은 사전규제에서 '민간 자율규제 및 사후규제'로 나아가야 함

- 제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신산업 및 R&D 투자, 미래 지향적 산업 정책 추진, 혁신 추구 선호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시급함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간소비의 하방압력을 완화하고 고용시장 안정 및 소득 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소비 활동을 권장할 필요
  -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안전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통해 독려
  -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된다는 전제 하에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활동 및 소비자심리를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소비 불평등 확대에 대비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소비 바우처 지원 확대,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감세 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소외계층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도 모색
- 향후 민간소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용시장 안정 및 소득 여건 개선책 마련이 중요
  - 특정 산업군에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될 경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기업 도산 가능성을 낮추고, 한계기업의 도산이 발생하더라도 민간소비 등에 파급되는 영향을 최소화
  -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실업에 대한 지원을 단기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에는 근로자 해고가 아닌 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국민들에 대한 일시적인 소득 보전도 중요하나, 재교육 및 취업 알선 등 일자리를 통한 소득 여건 개선이 더욱 중요

셋째, 경제 성장의 기반 확보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활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 기업의 투자 행태 보수화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규제 완화, 투자환경 개선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
  - 민간 기업 중심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등이 내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소재 등과 같은 혁신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기업들은 성과가 미진한 기존사업들의 수익성 검토와 함께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핵심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유망 신산업 분야의 사업기회를 포착하려는 전략적 노력도 중요

넷째, 건설 경기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의 공사 조기 발주 확대와 일관된 정책 추진이 요구되며, 민간 부문 투자 및 사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 공공사업 조기 발주 확대 및 인프라 투자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건설 경기 불확실성을 낮추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민간 건설투자의 부진을 완화하고 부족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 사업 회복의 필요성 인식,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유인책 마련이 필요
- 건설기업들은 한국판 뉴딜, 스마트 시티 등 관련 신산업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경영효율성 제고와 위기 대처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함

다섯째,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 2021년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유연한 정책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 노력이 요구됨
  - 2021년 대외 여건 개선과 함께 국내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투자 지원, 규제 철폐 등 대내외 변화에 유연한 정책 능력이 필요함
  - 또한, 미·중분쟁 등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가간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수출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전 세계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 및 재화·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비대면 경제 트렌드 등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문화·경제 트렌드의 변화에 부합하고 신성장 산업에서 선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품 연구 및 투자, 개발 집중이 요구됨
  - 또한, 소비재 및 자본재 수출품의 프리미엄을 통해 고부가가치 중심으로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함

여섯째,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물가 불안울 경계하고 서민 체감 물가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 경기 침체 지속으로 인한 수요 부진과 저물가 기조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 저물가 지속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여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 부진 등이 유발되어 경제 전반이 침체되는 악순환 발생 우려 증대
  - 경제주체의 기대심리를 개선하고 유효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의 집행이 필요
  - 기업 투자 여건 조성 등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수요 부진 및 저물가의 근본적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

- 단기적 충격으로 생활물가가 급등할 우려가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 기반 보완 필요
  - 생활밀접 품목 중 변동성이 큰 품목에 대한 정부 비축 규모 확대 및 시스템 개선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비책 마련
  -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한 환류 체계 강화 및 보완점 마련으로 서민 주거 부담 완화 시현

**일급제,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산업 활력 확보와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책 마련이 시급
  - 고용시장 충격이 소비 및 투자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질 경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 또한 임시일용직 등 경기 충격에 취약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실업자 및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 교육을 강화하여 일자리 탐색을 적극적으로 지원
  - 수출 부진으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 확대
- 일자리의 양적 개선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기존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통해 고용-성장-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
  - 시장 진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
  - 고부가가치 및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 **HRI**

## 2021년 한국 경제 전망 참여 연구진

【총괄】	주원	경제연구실장	(02-2072-6235, juwon@hri.co.kr)
【연구조정】 【대외여건】	홍준표	동향분석팀장	(02-2072-6214, jphong@hri.co.kr)
【소비】 【고용】	오준범	선임연구원	(02-2072-6247, jboh19@hri.co.kr)
【건설투자】	정민	연구위원	(02-2072-6220, chungm@hri.co.kr)
【설비투자】	박용정	선임연구원	(02-2072-6204, yongjung@hri.co.kr)
【대외거래】	류승희	연구원	(02-2072-6217, shryu@hri.co.kr)
【물가】	이진하	연구원	(02-2072-6269, jinha@hri.co.kr)